7월 첫 주말 인천공항 이용객 일일 5만명↑…동남아 '1위'

1~3일까지 인천공항 여객수 16만636명
일평균 5354명…지난달보다 1만명 증가

7월 첫째주 인천국제공항의 일일 여객수가 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처음이다.

4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7월 첫째주 주말인 1일부터 3일까지 인천공항의 이용객 수는 16만636명(출·도착 합계)으로 일평균 이용객 수는 5만35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일평균 4만2079명보다 1만명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증가는 정부가 지난달 8일부터 인천공항 도착편 수 제한(슬롯 제한)과 야간 항공기 운행제한(Curfew·커퓨) 등 코로나19 이후 강화했던 국제선 운항에 필요한 각종 주요 규제를 모두 해제되면서, 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 심리가 본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1~3일까지 인천공항을 운항한 항공기 운항편 수는 총 1408편으로 일평균 469.3편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6월) 일 평균 운항 434.5편보다 30편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인천공항의 국제선 이용객도 ▲1일 5만1432명(도착 2만5034명, 출발 2만6398명) ▲2일 5만3948명(도착 2만6273명, 출발 2만7675명) ▲3일 5만5256명(도착 2만8534명, 출발 2만6722명)으로 평균 5만명을 넘어섰다.

이 기간 인천공항을 통해 승객들이 주로 찾은 해외지역은 ▲동남아가 6만7726명(출·도착 합계)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주 3만3027명 ▲유럽 2만2230명 ▲대양주 1만2655명 ▲일본 7556명 ▲중동 7276명 ▲동북아 6282명 ▲중국 2291명 등의 순이었다.

조일상 하나투어 팀장은 "최근 1~2개월 사이 스페인과 터키 등 유럽 지역과 베트남 다낭, 필리핀 보라카이, 일본 홋카이도와 오사카 등 아시아 권 휴양지의 예약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국제선 이용객 증가는 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심리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국제선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6월) 인천공항의 이용객수는 126만2387명으로 전년 같은기간 24만5043명과 비교해 5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항공기 운항수는 1만3036편이었으며 전년 같은 기간 1만808편과 비교해 11.58% 증가했다.

김재환 기자

호주 주방가전 '브레빌', 한국지사 생겼다

온·오프라인 확장으로 소비자 접점 확대…아시아 최초

주방 가전 브랜드 브레빌은 아시아 지역 최초로 한국지사를 공식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다니엘 웰링턴이 한국 지사를 설립했으며, 국내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전개한 이종하 지사장이 브레빌 코리아의 수장으로 국내 사업을 이끈다.

1932년 호주 시드니에서 설립된 브레빌은 90년 전통의 프리미엄 주방 가전 브랜드다. 브레빌 코리아는 아시아 지역 최초이자 전 세계 11번째로 설립되는 공식 지사다.

브레빌은 한국 소비자의 음식 문화,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과 높은 기대치가 자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아 떨어진다고 판단해 직진출을 결정했다.

브레빌 코리아는 '요리의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Master Every Moment™)'라는 브랜드 슬로건으로 소비자가 자사 제품을 활용해 가정에서도 전문적이고 더 나은 요리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높은 퀄리티와 혁신적인 기능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브레빌 코리아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필두로 오븐과 에어 프라이어, 티 메이커, 쥬서기, 그릴 등 주방 가전 제품 라인업과 브레빌 그룹의 브랜드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는 가정용 최초 400도 가열 벤치탑 오븐 '피자이올로'을 비롯해 최신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컬러의 '럭스 에디션', 샌드위치·오븐과 같은 새로운 카테고리의 확장 등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 브레빌 그룹의 하이엔드 에스프레소 머신·그라인더 브랜드인 'LELIT(르릿)', 'Baratza(바라짜)' 등도 도입해 국내 커피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종하 브레빌 코리아 지사장은 "국내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정책, 공식 지사의 AS(사후서비스) 시스템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브레빌 코리아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제품 개발 등 브레빌의 가치를 국내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영시키는 전략도 신중하게 고려 중이다. 팝업스토어, 인플루언서 협업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국내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다.

이슬비 기자

친환경 배송에 특화…기아, '봉고 III EV 냉동탑차' 출시

배송시장 수요·친환경 정책·목적기반모빌리티(PBV) 방향성 반영

기아가 친환경 배송에 적합한 기능을 갖춘 전기 냉동탑차를 출시하고 관련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기아는 '봉고 III EV 냉동탑차'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2020년 1월 출시한 봉고 III 전기차(EV) 초장축 킹캡 기반의 특장 모델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급증한 시장 수요와 고객의 요구,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반영하면서 기아의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Purpose Built Vehicle)의 방향성을 담아 개발됐다.

국내 온라인 식품 시장규모는 2019년 약 2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58조5000억원으로 2배 넘게 성장했으며 이로 인해 냉장·냉동탑차 시장(국내 자동차 등록대수 기준)도 같은 기간 1만7300대에서 2만1200대로 22% 증가했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차량에 장착된 고전압배터리를 활용해 냉동기를 가동하도록 개발됐다. 이에 따라 보조배터리를 추가 장착해 판매 중인 외부 특장업체 차량보다 350㎏ 향상된 1000㎏의 적재중량을 제공하고 별도의 보조배터리 충전과정도 필요 없다.

135㎾ 모터와 58.8㎾h 배터리를 탑재해 완충 시 177㎞(냉동기 미가동상태 기준)를 주행할 수 있다.

냉동기 효율을 높여 냉동기를 가동하면서도 150㎞ 이상 주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됐으며 전기차인 만큼 5분 이상 공회전이 제한되는 디젤차와 달리 정차 시에도 냉동기 지속 가동이 가능하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기존 봉고 III EV의 편의사양인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패들시프트 ▲버튼시동 스마트키 ▲전자식 파킹브레이크 등이 기본으로 장착됐으며 ▲운전석 통풍·열선시트 ▲풀오토 에어컨 ▲오토라이트 컨트롤 헤드램프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등도 기본 적용됐다.

동절기 충전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배터리 히팅 시스템을 비롯해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운전자 주의경고(DAW) 등도 전 모델 기본 사양이다.

저상형과 표준형 2개 모델로 출시되며 각 모델의 가격은 ▲저상형 5984만원 ▲표준형 5995만원이다. 차량 구매 시 정부 소형화물 전기차 보조금 184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서울시 기준 788만원), 취득세 140만원 한도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주차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개인과 소상공인, 대형 업체의 니즈를 두루 반영한 상품성과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최적의 친환경 배송 맞춤형 차량"이라며 "봉고 III EV 냉동탑차로 친환경 유통 생태계를 확장하고 국내 냉장·냉동 물류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이마트, 최저가 '가격의 끝' 프로젝트 진행

계란·쌀·우유·휴지·칫솔 등 40대 필수 상품 가격 평균 13.0% 인하

이마트가 고객들이 많이 구매하는 주요 상품의 가격을 내리고, 상시 최저가로 제공하는 '가격의 끝' 프로젝트를 4일부터 진행한다.

"이마트에서 장보는 게 가장 저렴하다"는 인식을 고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연말까지 최저가 정책을 확대해나가고 이후에도 고물가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마트의 '상시 최저가' 첫 단계는 고객들이 일상에서 많이 먹고 사용하는 '40대 필수상품' 가격 인하다.

행사는 이마트 매장 및 SSG닷컴 이마트몰(점포배송상품 기준)에서 동일하게 진행한다. 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여타 대형마트 및 쿠팡 로켓배송 등 대형 온라인몰(이커머스)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매일 가격을 모니터링해 추가 가격 인하를 실시, 상시 최저가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40대 필수상품은 우유 김치 등 가공식품 17개, 계란 양파 등 신선식품 7개, 화장지 비누 등 일상 용품 16개로 이뤄졌다. 알찬란(계란 30구)은 7480원에서 6730원으로 내린다.

양파(3입)는 1800원에서 990원으로 45% 가량 인하한다. 쌀(여주쌀 진상 10kg)은 3만1900원에서 2만9900원으로, 콩나물은 2590원에서 2340원으로 가격이 낮아진다.

이밖에 코카콜라(1.8ℓ), 서울우유(1ℓ), 신라면(5입), CJ햇반(210g·12입) 등도 이번에 가격을 내렸다. 방향제 페브리즈(화장실용, 2입)와 칫솔 메디안듀얼이팩션칫솔(5입)은 30~5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마트는 이번 40대 품목과 별개로 500개 상품을 선정해 일주일 단위로 최저가 관리를 실시한다. 시즌별 판매가 많은 대표상품의 가격도 인하할 계획이다. 또 14일부터 2주 간격으로 구매 수요가 큰 상품 중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한 10대 상품을 선정해 최저가로 가격을 낮춘다.

이마트 강희석 대표는 "고물가로 근심이 커진 고객들의 부담을 덜고자 '가격의 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지속적인 최저가 관리를 통해 고객들에게 '이마트에 가면 김치·계란 등 나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홈앤쇼핑, '팡라이브'서 제주도·베트남 상품 공개

5일 오전 11시 여행상품 판매…라이브 혜택

홈앤쇼핑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5일 오전 11시 라이브커머스 '팡라이브'에서 다양한 여행상품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여행은 제주도 여행상품으로 2박3일 동안 제주도, 마라도, 우도를 만끽할 수 있다. 전일 호텔에서 숙박하며 수목원, 야시장, 푸드트럭, 프리마켓, 카멜리아 힐, 에코랜드 등 알찬 구성으로 준비했다.

최소 인원은 2명으로 최대 40명까지 구매 가능하다.

해외여행은 베트남 '다낭 남호이안 빈펄 리조트&골프' 상품이다. 베트남 최대 테마파크인 빈펄렌드에서 워터파크, 리버사파리 등 에어텔 자유여행 상품으로 가족들과 함께 자유로운 휴식과 힐링을 즐길 수 있다.

4인 이상 예약 시 풀빌라 옵션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며 두 지역 모두 전 일 조식 포함이다.

생방송 중 상담예약과 출발완료 고객에게 여행지원금으로 홈앤쇼핑 적립금 최대 12만원까지 지급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최이슬 기자

뚜레쥬르, 여름 디저트 출시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인기 웹툰 '유미의 세포들'과 손잡고 웹툰 속 스토리를 접목해 재미 요소를 더한 여름 제품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이 신제품은 웹툰 주인공 유미의 식욕, 이성, 사랑 등 감성을 조절하는 세포들의 캐릭터를 활용해 제품 맛과 이야기를 설정한 게 특징이다.

유미의 세포들 중 식욕 담당 '출출 세포'의 선택을 받은 뚜레쥬르 제품은 바로 '퐁신퐁신 크림 도넛'이다.

부드럽고 폭신한 도넛 속 달콤한 크림을 가득 넣은 여름 디저트다. '퐁신퐁신 우유 도넛' '퐁신퐁신 블루베리 도넛' '퐁신퐁신 바나나우유 도넛' 등 3가지 맛이다. 여름 과일의 맛을 살린 스무디 3종, '수박 스무디' '멜론 스무디'

'복숭아 스무디'도 출시한다.

뉴시스